

2011년 04월 26일 (화) 12:09 [연합뉴스 보도자료](#)
유재희교수, 인간의 감성 맞춤형 화질 실현 반도체 칩 개발 주력
 2011 특별기획 스포츠서울 LIFE 대한민국 산업별 POWER KOREA



HDTV, 프로젝터, 핸드폰, PC 모니터, 게임기, 전자 종이, 영화 스크린,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접목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장치는 핵심 성장 동력 사업 분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형화, 해상도 증가와 함께 최근에 들어와 화질 개선에 있어 급속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 홍익대학교 집적 시스템 연구실(교수 유재희, 02-320-1657)은 기존의 수치적인 화질 지표에 의한 화질개선에서 더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위한 인간의 인종, 연령, 선호도에 따른 감성 맞춤형 화질 실현 반도체 시스템 칩 설계에 관한 연구 진행을 통해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며 동 분야 중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상용화 가능 기술력을 보유한 이 연구실은 이미지 픽셀과 LCD 백라이트 컨트롤러 부분의 화질을 인간의 감성과 주변 환경, 디스플레이 패널 종류, 응용제품에 따라 최적화한 저전력디스플레이 장치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화상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한 메모리 압축 방안, [히스토그램](#) 분석 장치 등 디스플레이 패널 주변 장치의 설계 연구도 병행 중이다. 최근에는 CCTV 화질 향상 및 [유비쿼터스](#) 이미지 전송 시스템의 화질 저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실의 유재희 교수는 현재 Frontier 사업, 서울시 Cluster 사업 및 기업 제품 개발 총책임자로 국책 과제 수행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학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WPAN 유비쿼터스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축적하였고, 수십 편의 논문과 다양한 특허를 보유한 그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에 연속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한국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KIDS) 구동기술 및 시스템 연구회 회장직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증진해온 그는 현대 전자, GCT 등 다수 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일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디스플레이 및 카메라 화질 극대화 방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공학적 지식과 [색채학](#), 조명 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전반의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하였다.

(끝)

출처 : 스포츠서울라이프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